# 고고

考古

ARCHAEOLOGICAL RELICS

001

## 석검
## 石劍
Stone Dagger

청동기시대 | 길이 30.8 너비 7.4
Bronze Age | L 30.8 W 7.4

앞

뒤

마제석검은 돌을 갈아 만든 단검으로 청동기시대 전기에 출현하여 기원전 3 ~ 2세기경까지 사용된 대표적인 석제품이다. 석검은 퇴적암 계통의 셰일 · 슬레이트 · 이암 · 점판암 등으로 만들며 검의 날檢身과 손잡이柄部 부분으로 구성된다. 지석묘나 석관묘 등 무덤의 부장품으로 대부분 출토되지만, 주거지 같은 생활유적에서도 발견된다. 왼쪽은 점판암으로 만든 전형적인 일단병식一段柄式 석검으로 날의 단면은 능형, 손잡이 단면은 렌즈형을 이룬다. 칼끝과 날 부분이 손상된 것으로 보아 자르거나 찌르는 실용구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오른쪽은 혼펠스제 이단병식二段柄式 석검으로 날 부분이 길고 가늘며 검의 능이 뚜렷한 편이다. 이러한 형식의 석검은 주로 청동기시대 분묘의 부장품으로 출토되는데, 칼 끝부분과 날부분이 손상되어 있어 실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손잡이의 제작기법과 형식으로 보아 대략적으로 기원전 5세기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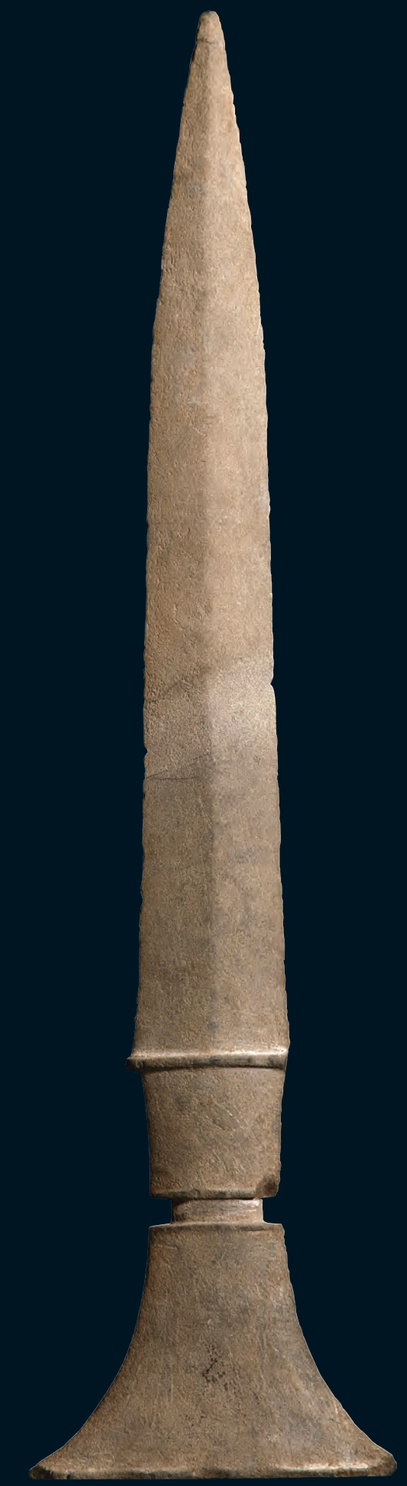
Two ground stone daggers representative of Bronze Age stone tools, and presumably made in the 5th century B.C.E. Most stone daggers were excavated from burial grounds, and are presumed to have been made and used for daily purposes such as cutting or piercing, as well as for rituals.



002

## 석검
## 石劍
Stone Dagger

청동기시대 | 길이 47.3 너비 5.2
Bronze Age | L 47.3 W 5.2



003

## 동과
## 銅戈
Bronze Spear

초기철기시대 | 길이 26.5 너비 8.8
Early Iron Age | L 26.5 W 8.8

슴베부분에 긴 나무자루를 수직에 가깝게 묶고 어떤 물체를 찍은 뒤 안쪽 날을 이용해서 베어내는 무기의 하나로 꺾창이라고도 한다. 특히 한국식 꺾창은 피홈血溝이 있고 슴베가 짧은 것이 특징으로 만주와 한반도에 걸쳐 출토하며, 세형동검과 함께 한반도 초기철기시대를 대표하는 청동무기이다.
이 동과는 출토지가 불명하며, 가운데 능선을 중심으로 2조의 세장한 피홈이 있다. 꺾창은 대체로 능선을 중심으로 양쪽에 피홈이 따로 있는 것, 봉부鋒部 가까이에서 양쪽의 피홈이 능선과 합쳐지는 것, 봉부 끝 부분이 넓어지는 것으로 형태가 변화한다. 동과의 형태적 특징으로 보아 초기 형식으로 기원전 3 ~ 1세기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A type of bronze weapon once used throughout Manchuria and the Korean peninsula, and is, along with the narrow-bladed bronze dagger, representative of the relics from the early Iron Age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the excavation site of this spear is unclear, based on its form, it is presumed to have been cast some time between 3rd to 1st centuries B.C.E.

004

## 세형동검
## 細形銅劍
Narrow-Bladed Bronze Daggers

초기철기시대 | **左** 길이 31.4 너비 4.0
**右** 길이 27.5 너비 3.4
Early Iron Age | **Left** L 31.4 W 4.0
**Right** L 27.5 W 3.4

초기철기시대의 대표적인 청동기로 검신부劍身部의 폭이 좁아 세형동검이라 부르며, 끝이 뾰족하고 양날이 있는 검신劍身과 자루를 장착하는 슴베莖部 부분으로 구성된다. 특히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것은 신부 한가운데에 등대와 결입부抉入部가 있는 것이 특징으로 자루를 함께 주조하고 등대가 없는 중국 중원 · 시베리아 지역의 동검과는 큰 차이가 있다.
왼쪽은 봉부가 짧고 혈구가 없으며 하단부의 각이 뚜렷한 형태이다. 등대는 결입부까지 연마되며 슴베 쪽 끝이 유선형인 제비꼬리형 마디로 연마되어 있다. 오른쪽은 봉부가 짧고 검신부의 폭이 더욱 좁아진 형태로 혈구가 없으며 등대는 죽절竹節형 마디로 연마되어 있다. 세형동검은 대체로 검신부의 폭이 넓은 것에서 좁은 것, 하단부의 각이 큰 것에서 작은 것, 등대의 마디가 제비꼬리형에서 죽절형으로 변화한다. 이와 같은 형태의 동검은 주로 분묘의 부장품으로 출토되며 기원전 3 ~ 2세기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Bronze daggers with a narrow blade representative of the early Iron Age. Mostly discovered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type of weapon is often referred to as the "Korean-style bronze dagger," and differs in form with those discovered in China or Siberia. These daggers were excavated from a burial ground, and are presumed to have been cast some time in the 3rd to 2nd centuries B.C.E.

005

# 방격규구사신경
## 方格規矩四神鏡
Bronze Mirror with Designs of a Square, Ruler Marks and the Four Symbols

원삼국시대 | 지름 20.1
Proto-Three Kingdoms Period | D 20.1

중국 춘추 · 진한시대에 유행한 박국博局이라는 오락기구와 문양이 유사하여 박국경博局鏡이라고도 부른다. 방격方格 안쪽에 12간지, 바깥쪽 규구規矩, TLV라고도 함 사이에 8마리의 사신四神 등 서수瑞獸와 길상구吉祥句를 배치한다. 주문主文의 종류에 따라 사신박국경四神博局鏡, 조문박국경鳥文博局鏡, 기하문박국경幾何文博局鏡, 간화박국경簡化博局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출토된 것은 사신과 조문 두 종류에 국한된다.
이 동경은 주문양대에 청룡 · 주작 · 백호 · 현무의 사신四神과 서수瑞獸 여덟 상像을 대칭되게 배치한 사신박국경이다. 가운데에 뉴를 중심으로 방형의 문양대가 있으며 그 내부에는 사엽좌四葉座와 12자의 명문이 있다. 외연은 삼각문과 당초문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김해 양동리 출토품으로 전해지며 김해 대성동 고분군 2호 · 23호 목곽묘에서도 출토 예가 확인된다. 사신박국경은 대체로 전한 말 ~ 후한 중기에 제작되는데, 이 동경은 1 ~ 2세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김해지역에서 방격규구사신경이 출토되는 무덤은 4세기 무렵의 것으로 편년되고 있어, 동경의 부장 시기는 제작 시기와 차이가 있다.

A type of bronze mirror that was prevalent during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in China and later in the Qin and Han Dynasties. On the backside of the mirror is a design containing the twelve signs of the Chinese zodiac, the Four Symbols of the Chinese constellations (Azure Dragon, Vermillion Bird, White Tiger, Black Tortoise), auspicious beasts *ruishou* and words of fortune. This particular article was excavated from the burial grounds in Yangdong-ri in Gimhae, Gyeongsangnam-do Province, and is presumed to have been cast some time in the 1st to 2nd centuries C.E.

006

## 호형대구
## 虎形帶鉤
## Tiger-Shaped Belt Hook

원삼국시대 | 길이 7.2 너비 4.2
Proto-Three Kingdoms Period | L 7.2 W 4.2

호형대구는 마형대구와 함께 원삼국시대 한반도 동남부지역에서 유행한 청동 허리띠 장식품이다. 마형대구와 마찬가지로 호랑이의 표현이 점차 간략화 · 추상화되다가 소멸한다. 초창기 형식의 것은 머리 부분을 집선문으로 장식하고 귀와 입 · 이빨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날렵한 몸통과 다리는 굴곡을 주어 표현하였으며 목과 허리 부분도 집선문으로 장식한다. 꼬리는 등 부분으로 감아 올린 선의 형태이다. 이 대구는 마모로 인해 얼굴과 몸통의 문양이 명확하지 않지만 머리 부분에는 귀와 입의 표현이 남아있다. 등 부분은 완만한 굴곡을 이루는 등 전체적인 호랑이의 형상이 뚜렷한 편이지만, 다리 · 꼬리 등은 초창기 형식에 비해 다소 간략화 되었다. 이러한 양상으로 보아 이 호형대구는 기원전 1세기 무렵의 것으로 추정된다.

A bronze belt ornament cast in the shape of a tiger from the 1st century B.C.E. Tiger-shaped belt hooks were, along with horse-shaped belt hooks, prevalent throughout the southern regions on the Korean peninsula, but disappeared by around the start of the Common Era. With a simplified rendition of the head and tail of the tiger, this ornament resembles the tiger-shaped belt hooks excavated from ancient tombs in the cities of Gyeongju and Gimhae.



007

## 마형대구
## 馬形帶鉤
## Horse-Shaped Belt Hooks

원삼국시대 ~ 삼국시대
**左** 길이 8.0 너비 6.0
**中** 길이 10.2 너비 6.8
**右** 길이 10.0 너비 7.0
Proto-Three Kingdoms Period - Three Kingdoms Period
**Left** L 8.0 W 6.0
**Center** L 10.2 W 6.8
**Right** L 10.0 W 7.0

말 모양의 허리띠 장식으로 혁대에 부착하여 맞은편의 둥근 고리環에 걸어서 고정한다. 이러한 동물장식은 북방유목민족의 영향으로 추정되며 한반도에서는 원삼국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출토된다. 말의 형태를 어떻게 표현했는가에 따라 분류 · 편년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간략화 · 추상화된다.
가운데는 말의 전체적인 형태가 뚜렷한 편이다. 전체적으로 굴곡을 주어 머리, 몸의 형태, 다리의 관절과 발굽 등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마형대구는 기원전 1세기 ~ 기원후 2세기 무렵, 김해 · 경주 등 한반도 남동부지역에서 유행한다. 왼쪽은 가운데에 비해 머리와 몸통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점차 간략화 된다. 목과 배 부분이 직선적으로 표현되며 다리는 아래로 갈수록 얇아진다. 이후 오른쪽 단계에 이르면 말의 형태는 더욱 추상적으로 표현되면서 입체감은 거의 사라진다. 머리의 형상이 불명확하며 꼬리도 형식적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다리 사이의 여백은 사격자문 등으로 장식한다. 이렇게 추상화된 형태의 마형대구는 3 ~ 5세기 무렵, 천안 · 충주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한다.

Bronze belt ornaments, each cast in the form of a horse. Influenced by the nomadic tribes of the north, such hooks were prevalent on the Korean peninsula beginning in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and in the following Three Kingdoms Period. The article in the middle is a design that was popular from the 1st century B.C.E. to the 2nd century C.E., while the two others were widely used during the 3rd to 5th centuries C.E. With time, the depiction of the horse seems to have undergone gradual change toward a more abstract and simpler form.

008

#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 組合式牛角形把手附壺
## Jar with Bullhorn-Shaped Handles

원삼국시대 | 높이 18.3 입지름 17.8
Proto-Three Kingdoms Period | H 18.3 Md 17.8

원삼국시대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토기로 주머니호 등과 함께 목관묘木棺墓에 부장된다. 무문토기단계 말기에 점토대토기와 함께 제작되기 시작하여 와질토기 단계까지 지속되므로 영남지역 목관묘 편년에 기준이 되는 토기이다.
쇠뿔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것이 특징인 이 항아리는 기면器面이 흑회색, 단면이 다갈색을 띠는 와질토기이다. 장석 · 운모 등 굵은 사립이 다량 함유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표면이 쉽게 떨어져 나간다. 구경부口頸部는 회전물손질로 정연히 정면하였으며, 첨저형의 동체부는 전체 종방향 타날 한 후 몸통 상부에 횡침선을 등간격으로 돌려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중에서 비교적 늦은 것으로 1세기 후반 ~ 2세기 전반 무렵 유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A representative form of Gyeongsang-do earthenware from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jars of this type are regarded as an indication of the chronological position of the burial grounds from which they are excavated. Such jars were widely used during the late 1st to early 2nd centuries C.E., and were buried with the deceased alongside pouch-shaped jars in wooden coffins.

009

# 종장판갑
# 從長板甲
## Plate Armor

삼국시대
최대높이 61.0 전동부 높이 42.4 후동부 높이(고대판 제외) 44.7
좌우최대폭 42.9 좌우최소폭 34.0

Three Kingdoms Period
H 61.0 Front Side Height 42.4 Back Side Height 44.7
Left·Right Mw 42.9 Left·Right Mw 34.0

갑옷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대표적인 방어용 무구武具이다. 삼국시대 갑옷은 여러 가지 모양의 철판을 이어 만든 판갑옷板甲과 작은 철판小札을 가죽으로 엮어 비늘처럼 만든 비늘갑옷鱗甲으로 나눌 수 있다. 철판의 모양과 엮는 방법에 따라 세분할 수 있는데, 세로로 긴 철판을 이어 만든 것을 종장판갑從長板甲이라 부른다. 종장판갑은 3세기 말 ~ 4세기 초에 출현하여 5세기 전반대까지 부산, 김해, 경주, 울산 등 한반도 동남부지역에서 유행하는 갑옷 형식이다.
이 갑옷은 총 11매의 철판을 못으로 연결한 것으로 김해지역 출토품으로 전해진다. 갑옷의 목 부분은 뒤쪽에 고대판을 부착하고 양쪽 어깨에 반달모양의 깃판을 부착하였다. 특히 깃판의 위쪽 부분에는 여우 · 담비 등 동물털을 사용하여 장식한 흔적이 확인된다. 어깨 쪽은 철판을 L자형으로 절개하여 소매효과를 내고, 갑옷 하단에는 도련판을 둘렀다. 갑옷의 가장자리는 철판을 바깥쪽으로 0.5㎝ 가량 접어 복륜하였다. 오른쪽 옆구리 부분에는 철판에 구멍을 뚫고 가죽끈으로 연결하여, 쉽게 착용할 수 있도록 개폐장치를 달았다. 전체적인 갑옷의 구조와 특징으로 보아 대략 4세기 후반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Plate armor made by nailing together eleven long iron plates. Iron plate armor of this design is often excavated in the cities of Busan and Gimhae from the burial grounds of military officials that were formed in the 4th to 5th centuries C.E. Such armor was worn to protect the body during battle, and as a symbol of the commander. In terms of design, this plate armor seems to have been made in the late 4th century C.E.

좌측면

우측면

010

## 재갈
## 轡

Metal Bit

삼국시대 | 길이 19.0
Three Kingdoms Period | L 19.0

011

## 행엽
## 杏葉

Harness Pendant

삼국시대
길이 9.5 지름 8.0
Three Kingdoms Period
L 9.5 D 8.0

재갈은 말을 제어하는 중요한 마구馬具의 하나로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쇠銜, 재갈쇠가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재갈멈추개銜留, 말을 조정하기 위한 고삐를 연결하는 고삐이음새引手로 구성된다. 이 재갈은 2가닥의 철봉을 꼬아서 봉을 만들고 양쪽 끝에 둥근 고리를 만든 재갈쇠, 타원형의 철판 위에 은을 덧씌워 장식한 재갈멈추개, 긴 철봉을 접어서 만든 고삐이음새가 잘 남아있다. 이러한 형태의 재갈멈추개를 판비板轡라 부르는데, 금동 · 은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것이 많아 의장용으로 추정되며 신라 · 가야 · 백제 등 한반도 남부에서 널리 유행하였다. 특히 경주를 중심으로 한 낙동강 동안지역에서는 판비의 하연下椽 중앙이 바깥쪽으로 돌출한 심엽형心葉形으로 입문 구멍立聞孔 ; 가죽 끈이 연결되는 구멍 은 장방형, 구금구鉤金具 ; 입문을 통과한 가죽 끈을 고정하기 위한 연결구 의 고리가 띠 형태帶狀인 것이 많다. 이 재갈은 신라 마구의 특징이 엿보이며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반 유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A bit is an important horse tack used in controlling a horse. This particular article was made by attaching a silver plate to an iron base. Prevalent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this design is characteristic of the bits made in the kingdom of Silla from the late 5th to early 6th centuries C.E.

행엽은 말의 가슴걸이나 후걸이에 매달아서 장식하는 치레걸이로 말띠드리개라고도 한다. 금 · 금동 · 은 · 철 등 다양한 재질의 문양판이 장식되는 신부身部와 가죽끈이 연결되는 구멍인 입문立聞으로 구성된다. 신부는 심엽형心葉形, 타원형橢圓形, 편원어미형扁圓魚尾形, 검능형劍菱形, 자엽형刺葉形, 종형鐘形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며 출현시기와 지역에 따라 유행을 달리한다. 이 행엽은 심엽형의 철판 위에 은제 문양판을 얹고 은을 덧씌운 못을 같은 간격으로 박아 고정하였다. 입문은 장방형이며 가죽끈을 고정하기 위한 구금구鉤金具편이 부착되어 있다. 삼국시대 고분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는 형식으로 고구려 · 백제 · 신라 · 가야는 물론 일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출토된다. 이 행엽은 경주 황남대총 남분 부곽, 인왕동 19호 J곽, 황남동 106-3번지 6호분 등지의 출토품과 유사한 형태로 대략 5세기 후반 ~ 6세기 전반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An ornament that is hung from the breast plate or breeching of a horse. Depending on the burial time and location, harness pendants were made of different materials and in various designs. This pendant was made by nailing a silver heart onto an iron plate. Similar designs were prevalent throughout the kingdom of Silla during the late 5th to early 8th centuries C.E.

012

## 태환이식
## 太鐶耳飾
## Thick-Hooped Earrings

삼국시대 | 고리 지름 2.3
Three Kingdoms Period | Mrd 2.3

삼국시대에는 금 · 금동 · 은 등 다양한 금속제 귀걸이가 만들어지는데, 특히 신라와 가야지역에서는 금으로 만든 화려한 것이 유행한다. 귀걸이는 거는 고리主環, 중간 고리游環, 중간 장식中間飾, 드리개尾飾 등으로 구성된다. 귀에 거는 부분이 굵은 고리로 되어 있는 것을 태환식 귀걸이라 한다. 이 귀걸이의 태환은 세로로 긴 금판 2목을 단접한 후, 둥글게 오므려 만들었다. 거기에 가는 고리游環를 걸고 작은 고리 여러 개를 연접해 만든 구체球體 두 개를 연결하였다. 구체에는 6개의 금사를 꼬아 심엽형心葉形의 달개를 달아 장식하였다. 드리개에는 가운데에 새김눈으로 장식된 띠를 붙인 심엽형 금판을 달았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귀걸이는 경주 서봉총 · 천마총 · 미추왕릉 · 황남동 · 인왕동 등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 무렵의 신라 고분에서 다수 출토된다.

A wide range of metals including gold, gilt bronze and silver were used to make earrings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ornate gold earrings were prevalent especially in the kingdoms of Silla and Gaya. This pair was excavated, along with other similar earrings with thick hoops, from a massive burial mound in the Gyeongju region, and is characteristic of the style that was prevalent in the late 5th to early 6th centuries.



013

## 세환이식
## 細鐶耳飾
## Thin-Hooped Earrings

삼국시대
고리 지름 2.1
Three Kingdoms Period
Mrd 2.1

귀에 거는 고리의 지름이 2 ~ 4㎜ 가량으로 가는 것을 세환이식細鐶耳飾이라 하며, 태환식보다 중간식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화려하다. 신라지역에서는 중간식에 작은 고리를 연접한 구체나 속이 빈 금구슬을 사용하다가 5세기 후반에는 금판을 원통형으로 말고 그 위, 아래에 반구체의 장식을 모자처럼 끼운 것이 유행한다. 6세기가 되면 중간식에 금 알갱이를 붙이거나, 상감하여 화려하게 만든다. 이 귀걸이는 단면 원형의 청동 봉에 금판을 입힌 세환, 원통형의 중간식, 심엽형과 오목한 원형의 금판을 같이 매달은 드리개로 구성된다. 중간식은 얇은 금판을 말아 원통형으로 만들고 위와 아래에 꽃잎무늬를 장식한 반구체를 씌웠다. 그리고 원통형 판에는 금알갱이를 붙여 꽃모양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이 경주 황남대총 · 황남동 · 미추왕릉지구 등지에서 출토하였으며,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반 신라지역에서 유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Ornate thin-hooped earrings of intricate designs were made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in the territories of Silla and Gaya. This particular design was prevalent in the kingdom of Silla during the late 5th to early 6th centuries. The main hoop is a thin sheet of gold first rolled into a pipe, and then bent into a ring, from the end of which hangs a cylindrical ornament decorated with miniscule bits of gold arranged in the shape of a flower.

014

# 방울잔
# 鈴杯
## Goblets with Rattle Base

삼국시대
**左** 높이 19.2 입지름 12.5 밑지름 9.0 | **右** 높이 19.2 입지름 12.0 밑지름 9.0
Three Kingdoms Period
**Left** H 19.2 Md 12.5 Bd 9.0 | **Right** H 19.2 Md 12.0 Bd 9.0

소성상태가 양호한 회색 도질토기로 대각을 붙인 소호小壺에 컵을 붙인 형태이다. 두 점 모두 형태와 크기는 같지만 방울이 들어 있는 호의 장식에 차이가 있다. 상부의 컵은 외면에 돌대를 돌려 4단 구획하고 그 사이에 5 ~ 6치구의 파상문을 장식하였다. 왼쪽 방울잔은 소호小壺에 2개의 돌대를 돌려 3단 구획하고 상단에는 즐묘점열문 시문 후 삼각형 투창 6개를 뚫었으며, 중단에는 5치구 파상문을 돌리고 6개의 방형 투창을 뚫었다. 호의 하단과 대각부에는 각기 방형 투창 6개를 뚫었다. 오른쪽 방울잔은 돌대를 돌려 상하로 구획 후 상단에는 'く'자형으로 즐묘점열문을 시문하고 7개의 삼각형 투창을 뚫었다. 하단과 대각부에는 각기 장방형 투창 7개를 뚫었다. 그리고 소호 내부에는 지름 1.5 ~ 2㎝가량의 흙구슬을 삽입하였다.
방울잔은 삼국시대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출토되는데, 대각을 부착하고 다양하게 장식한 것은 신라와 가야의 특징이다. 장식 없이 단순한 형태는 백제지역에서 유행하였다.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방울잔이 출토되고 있어 한반도와의 교류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Earthenware goblets mounted on an openwork base that functions as a rattle. The base contains an earthenware bead with a diameter of 1.5cm to 2cm, and produces a sound when shaken. This type of rattle goblets dating back to the Three Kingdoms Period on the Korean peninsula was excavated from the territories of Gaya, Silla and Baekje in the south. Similar earthenware goblets have been excavated in the Japanese archipelago, indicating a possibility of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peninsula and island nations.

015

# 기반과 고배
## 器盤 · 高杯
Mounted Cups with Stand

삼국시대 | 높이 11.8 입지름 29.0 밑지름 26.0
Three Kingdoms Period | H 11.8 Md 29.0 Bd 26.0

대각이 부착된 반盤 내부에 고배 3점을 붙여 놓은 회청색 도질토기이다. 기반과 고배는 각기 따로 만든 후, 고배의 대각 끝부분 양쪽 흙을 짓이겨 부착 · 소성하였다. 소성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그릇 내 · 외면에 녹색 자연유가 생성되어있다. 그릇 표면은 정연하게 회전 물손질하여 마무리하였다. 기반의 배신부 가운데에 지름 8.3㎝가량의 구멍을 도려내었으며, 대각에는 방형 투창 12개를 뚫었다. 고배는 장방형 투창 4개를 뚫었다. 기반에 고배를 부착하여 만든 토기는 황남대총 남분 · 북분 · 금관총 · 천마총 등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 신라의 대형 적석목곽묘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다. 따라서 이 토기는 5세기 후반 경주의 대형 고분에 부장되었던 부장품으로 추정된다.

A set of three mounted cups placed within a circular stand. Such articles of earthenware were buried with deceased kings in their massive burial mounds in the Gyeongju region. Based on its form, this set is presumed to have been made some time in the late 5th to early 6th centuries.

016

# 마문장경호
## 馬文長頸壺
## Long-Necked Vessel with Horse Design

삼국시대 | 높이 41.4 입지름 16.4 밑지름 20.0
Three Kingdoms Period | H 41.4 Md 16.4 Bd 20.0

소성상태가 양호한 도질제 대부장경호로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부분적으로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으며, 색조는 진회색이나 일부 벗겨져 밝은 회색을 띤다. 구경부는 2조씩 돌대를 돌려 3단 구획하고 중 · 하단에 6 ~ 7조의 종방향 침선문을 시문하였다. 동체부는 깎기로 그릇의 면을 정리한 후 상부는 회전 물손질, 하부는 목리에 가까운 회전 물손질로 마무리하였다. 동체 중부위에 침선을 돌려 구획하고 그 위쪽에 7조의 종방향 침선문을 시문하였다. 동체 상부에는 말 5마리를 그려 장식하였는데, 침선으로 몸통과 꼬리 · 귀 등을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대각에는 방형 투창 7개를 뚫었다. 목과 몸통부분에 세로로 선을 그어 장식한 문양과 말 그림이 있는 대부장경호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 경주의 신라고분에서 주로 출토된다.

An earthenware vessel characteristically decorated with five horses around the shoulder scratched on with a needle. One of the horses is slightly smaller in size than the other four. Such horse-patterned vessels were mostly excavated from ancient Silla tombs in the Gyeongju region, dating back to the late 5th to early 6th centuries.

017

# 유개대부완
## 有蓋臺付盌
Mounted Bowls with Lids

삼국시대 | **뚜껑** 높이 5.4 입지름 9.5 | **대부완** 높이 14.8 입지름 8.1 밑지름 7.8
Three Kingdoms Period | **Lid** H 5.4 Md 9.5 | **Bowl** H 14.8 Md 8.1 Bd 7.8

형태와 제작기법이 같은 적갈색 연질 소성품으로 5점 모두 일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분적인 파손이 확인되지만 완전한 형태로 잔존상태는 양호하다. 운모 · 장석 · 석영 등 굵은 사립이 다량 혼입된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그릇의 외면은 평행 타날하여 정면한 후 물손질로 마무리하였다. 뚜껑은 반구형으로 유두형 꼭지를 부착하고 완의 대각에는 지름 1.2㎝ 가량의 투공 4개를 밖에서 안쪽으로 뚫어 장식하였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토기는 6세기대 신라토기에서 확인된다.

Five pieces of soft, reddish brown earthenware of identical form and method of production, presumed to have been made at the same time. The exact site of excavation and time of production are unknown, but other articles similar in form have been identified as Silla earthenware, dating back to the 6th century C.E.

018

# 병
# 甁

Earthenware Vessel

삼국시대 ~ 통일신라시대 | 높이 15.0 입지름 10.6 밑지름 10.2
Three Kingdoms Period - Unified Silla Period | H 15.0 Md 10.6 Bd 10.2

소성상태가 양호한 도질토기로 낮은 굽과 횡타원형의 몸통, 좁은 목과 벌어진 아가리를 가진 병이다. 색조는 회청색을 띠며 자연유가 부분적으로 흡착 되어있다. 구경부口頸部는 가운데에 돌대를 돌려 상하로 구분하고, 이중원권문二重圓圈文을 찍어 장식하였다. 동체부胴體部는 침선을 돌려 문양대를 구획한 후, 이중원권문二重圓圈文과 능형문菱形紋으로 장식하였다. 기면은 회전 물손질하여 정연하게 정면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병은 7세기 초 무렵, 중국 도자기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삼국시대 말기에서 통일신라시대 전 기간 동안 사용되었다. 전체적으로 안정되고 균형 잡힌 형태로 꿀이나 술 같은 고급 액체를 담을 때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Such vessels were made in the early 7th century, influenced by imported earthenware from China, and were widely used during the late Three Kingdoms Period and throughout the subsequent years in Unified Silla. Well-balanced in overall form, this vessel is presumed to have been used to contain precious liquids such as honey or liquor.

019

# 연유직구호
## 鉛釉直口壺
Lead-Glazed Vessel with Upright Mouth

삼국시대 ~ 통일신라시대 | 높이 7.5 입지름 8.5 밑지름 13.5
Three Kingdoms Period - Unified Silla Period
H 7.5 Md 8.5 Bd 13.5

잔존상태가 양호한 경질토기로 녹유綠釉를 그릇 외면에 두텁게 시유하였다. 유약이 매끄럽게 도포되지 않았으며, 동체 하단은 산화되어 녹색을 띠고 상단은 환원되어 짙은 갈색을 띤다. 단면은 밝은 회색을 띠며, 장석 함유량이 많은 정선된 태토이다. 물레 성형 흔적이 뚜렷하며, 동체 하단부는 대각 접합 후 회전 깎기로 마무리하였다. 그릇 외면은 침선 3조를 둘러 4단 구획한 후, 삼각집선문과 이중원문을 같은 간격으로 찍어 장식하였다. 대각부에는 방형의 투공폭 0.6cm 4개가 비대칭으로 뚫려 있다. 대각부 가운데 부분에는 폭 0.1 ~ 0.2cm가량의 내화토 비짐 3개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기물과 중복하여 소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연유도기는 신라에서 7세기 초부터 생산되기 시작한다. 연유도기는 기본 투명유에 금속산화물을 첨가하여 다양한 색으로 제작할 수 있는데, 동銅을 첨가하면 녹유綠釉, 철은 갈유褐釉나 홍유紅釉, 코발트는 남유藍釉가 된다. 이 연유 직구호는 전체적인 형태와 장식 문양이 7세기 초 무렵 신라 토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신라 연유 도기의 개시기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이다.

Lead-glazed pottery can be made in different colors, depending on the oxidized metals added to the basic transparent glaze. This particular article would have originally been green due to the addition of bronze. The overall form and decorative patterns of the vessel are characteristic of Silla pottery of the early 7th century, making it an important material that can offer greater insight into the beginning of lead-glazed ceramics in Silla.